



오늘의 작품



■ 관성경 작 '시간과 공간: 모세의 선택'

검정색 테이프로 동양 禪·氣 표현

'시간과 공간: 모세의 선택(Time and Space: Moses Choice)'은 검정색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 공간에 대한 시각적, 감성적 반응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공간 드로잉'이다.

종이 테이프를 소재로 물결의 흐름이나 바람을 연상시키는 드로잉 작업을 통해 동양의 선(禪)과 기(氣)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물결 모양의 리드미컬한 벽면에 부착된 종이 테이프는 동양적인 선묘의 정신을 보여준다.

작가는 종이 테이프라는 평면적 매체로 입체적인 건축물과 공간 위를 제약 없이 넘나들며 재료와 합일을 염원하고 있다. 작품의 모티프는 성서의 '홍해의 기적'에서 얻었다.

숙명여자 대학교와 뉴욕대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비엔날레 (12일)

▲미술 퍼포먼스=오후2시 30분, 빛 가든. J.MASIC이 선보이는 신나는 미술.

▲숏대 전시=오전 10시~오후 6시, 민속박물관 1관. 개막식에 선보인 숏대 조형물과 다양한 개성의 숏대 50여점 전시

▲꽃으로 만나는 비엔날레=오전 10시~오후 6시, 민속박물관 2관. '140만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주전남꽃예술연합회의 꽃꽂이 전시회.

▲전자바이올린 공연=오전 10시~11시, 주 전시관 앞. 카자흐스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아카 미샤(Aka Misha)의 공연.

▲임카 엘리피어 공연=오후 2시~3시~4시, 빛 카페. 에콰도르와 페루의 연합팀으로 각국의 전통 음악 연주.

24일 광주시 국제무대 데뷔 20주년 기념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오직 최선을 다할 뿐 노래할수 있는 삶 감사”



'어떤 고난이 닥쳐도 꺾이지 이겨내며 약해지거나 울지 않을 것, 약하거나 외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늘 도도하고 자신만만할 것, 어학과 노래에 온통 치중할 것, 깨끗하고 자신에게 만족한 몸가짐과 환경을 지닐 것'

지금도 일기를 쓰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지난 1983년 3월 28일에 적어내려간 글이다. 로마 공항에 도착한 후 비가 오는 벤치에 앉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 내용이었다. 그녀의 노력은 곧 열매를 맺었다. 유학 온지 2년반만에 그녀는 프리마 돈나로 세계 무대에 첫발을 내딛었다. 올해는 그녀가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주인공 질다 역으로 이탈리아 트리스테 극장에서 데뷔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다.

수원·대구·부산 등을 거쳐 24일 오후 6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제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갖는 그녀와 e-메일 인터뷰했다. 바쁜 순회 공연 일정 중에도 그녀는 음악교사와 만남을 갖는 등 '나누는 삶'도 실천하고 있다.

-난생 처음 음악교사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치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음악회이자 작은 세미나였다. 교사들에게 평소 음악에 대해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 조언했다. 또 음악가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엔 서울, 경기 지역 교사만을 초청했지만 앞으로 광주는 물론 수도권까지 찾아가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싶다.

-당신에게 데뷔 20주년은 어떤 의미인가. ▲내 음악 인생을 뒤돌아 보게 해준 시간, 다시 한번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준 시간, 내 인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들이다.

-대학시절 52등까지 떨어졌고 그게 유학의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좌절 대신 더 큰 도전을 하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좌절이라는 단어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순간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이 주는 의미와 그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예술가에게 있어 정신적 고통과 번민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올림피아’역 가장 인상

-지역에 남는 무대와 배역은 무엇인가. 연주자에게 있어 특별한 무대라는 것은 없다. 다만 내가 서기 때문에 그 무대가 특별해지기를 바라며 무대에 선다. 카리안과 함께했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남북 음악가 공연했던 평화음악회 기억에 남는다. 또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배역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의 '올림피아'역이다.

-2006년 사틀레 극장 실황이 이달말 DVD(To my father)로 발매되는데 그 공연이 갖는 의미는 ▲사틀레 극장은 일류 성악가들의 리사이틀 장소로 그곳에 서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클래식

중심 도시인 파리 무대인데다 쿼테 높은 파리지영들에게 좋은 리뷰를 받아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준 공연이었다. 또한 공연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연이다. '팬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앙코르 곡으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불렀을 때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위로해줬다.

‘나누는 삶’ 실천 계속

-‘소문난 칠공주’ OST 참여 등 ‘대중’과 함께하는 작업들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클래식 연주자로서 관객과의 교감은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 있는 일이다. 내 음악성이 허락하는 한 많은 장르의 음악에 도전, 관객과 교감을 나누려 한다. 내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게 기쁘고 음악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주 받는 질문일텐데 결혼에 대한 생각은?

▲결혼할 때가 되면 하겠지만 나의 좌우명이 'beautiful challenge'이듯, 음악 뿐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명이라는 걸 믿는 편인데 때때로 다투며 음악을 전하는 것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표현하는 단어 3개만 든다면.

▲진실, 열정, 정(情)이다.

-늘 도전하는 음악가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책 한 줄이라도 더 읽고 1분이라도 더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다. 러시아 음악을 더 공부할 계획이고 한국의 실력 있는 신진 작곡가들의 음악을 유럽에서 공연하거나 음반을 통해 알려 인정받고 싶다. 또 음악인으로서의 재능을 사회와 나누려 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전



진실



열정



조선대 미술대-베를린 예술대학 교류전

23일까지 獨 쿠어갤러리서

조선대 미술대학(학장 진원장)과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이 오는 23일까지 베를린 예술대 쿠어갤러리에서 국제 교류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 미술대와 베를린 예술대가 지난해 5월 교류 협연을 맺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해외 교류전이다.

'한국의 젊은 미술(Young Art from Korea)'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진원장 교수와 최영훈 교수의 작품을 비롯 서양화, 한국화 전공 학생 작품 48점이 출품된다.

서양화가 진원장 교수는 한국적 정서를 담은 '어머니의 땅'을, 최영훈 교수는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새벽의 소리'를 선보인다. 한국화가 양계남 교수는



진원장 작 '어머니의 땅'

'가면'을, 김대원 교수는 'Legend time'을, 김종경 교수는 '정지된 생명' 등 작품으로 독일 관객들을 만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 '동소산 머슴새' 광주 공연

13~14일 5·18기념문화관

보성에서 동지를 들고 활동중인 푸른연극마을이 오랜만에 광주 나들이에 나선다. 푸른연극마을은 13~14일 오후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창작극 '동소산 머슴새'를 무대에 올린다. '동소산 머슴새'는 신분을 천한 머슴이었지만 의병활동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안규홍과 민초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으로 연기와 노래, 구음, 타악 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대표 오성완씨가 대본과 연출을, 배창희씨가 음악을 맡았으며 이담금·이현기·양신승·박영진·김명대·김안순·나윤정·배진진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11-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p>장성동화공인중개사 공정·공신·공익 Tel: 011-2379-1710</p>	<p>공장, 공장부지 다양한 물건 다량보유 물류창고, 임야 토지 투자 상담 전문</p>	<p>수표 7시~5시, 11시~1시 652-7544</p>	<p>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p>	<p>부동산 부동산 서비스</p>
<p>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p> <p>1. 차량 상태 우수함 2. 차량 가격 저렴함 3. 차량 종류 다양함 4. 차량 상태 우수함 5. 차량 가격 저렴함 6. 차량 종류 다양함</p>		<p>거상부동산건설 부동산 서비스</p>		<p>부동산 교환 부동산 서비스</p>
<p>011-2379-1710 (유) 장성동 자동차 매매상사</p>		<p>부동산 서비스</p>		<p>부동산 서비스</p>